

www.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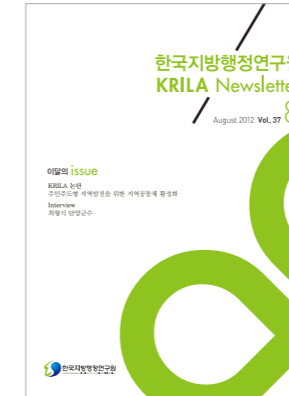
August 2012 Vol. 37 8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이달의 **issue**

KRILA 논단
주민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Interview
최형식 담양군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37호
 발행인 / 한 표 환
 편집인 / 뉴스레터 위원회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무료) newsletter@krila.re.kr

이달의 **issue** 지역공동체 활성화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두언 지역공동체와 지역발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ILA 논단 주민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view 최형식 담양군수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탐험 맑은 대나무 숲이 살아 숨 쉬는 생태도시, 담양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우수사례 주요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통계 마을공동체 관련 지역일자리사업 현황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동정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Newsletter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지역공동체와 지역발전



한 표 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발전은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대신 지역 공동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온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최근 우리사회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통한 지역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전통과 특성을 복원, 계승, 발전시키고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다. 이를테면, 지역공동체에 잠재되어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공동체의 자발성에 무게를 둔 발전전략인 셈이다.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의 부각에는 국내적 요소와 국외적인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국내적인 요소에는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이 가져온 ‘급격한 도시화’의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치인 75.5%를 상회하는 90%를 초과하여, 도시화가 우리네 삶의 공동체를 그만큼 신속하게 해체시켰다. 농촌의 경우는 ‘이촌향도’ (離村向都)로 대변되는 대규모 인구탈출에 이어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공동체 자체가 와해될 지경에 처해 있으며, 도시는 “주거환경 개선”, “불량촌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원주민을 대량으로 이탈시켜 ‘사회적 연줄망’을 파괴시키고, 공동체의 생활과 문화, 역사를 해체시켜왔다. 철거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국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득세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공동체 내적 역량활용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한정된 재원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발전의 활성화의 배경이 되었다.

이같은 요소에 의해 주목받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발전은 종래의 중앙주도적이고 외발적인 전략이 설령 지역의 총량적인 발전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행복을 가져오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 전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민의 행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내발적 발전을 모색해보자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쟁력 강화 등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중앙정부 주도의 거대전략이 지역사회의 체감적 발전과 거리가 있고, 그러한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주도의 지역개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역 공동체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대안적 지역발전전략으로의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의 ‘정부 지원형’ 공동체가 주도하는 발전에서 ‘자생적 공동체’가 주도하는 발전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갈 필요가 있다. 공동체를 통한 지역발전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래의 획일적인 지역발전정책의 폐해를 시정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활력회복,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이 해당된다. 또,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시간을 정해놓고 사업을 완료하는 단발성이 아니라 주민참여, 나눔과 공동성 등을 통한 공동체의 지속성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과정’도 중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통한 지역발전이 거시적인 지역발전정책을 해결할 수 없는 공백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지역사회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민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김 선 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I. 지역발전주체로서 지역공동체의 의의

금융위기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의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고착화되면서 취업여건이 악화되어 일자리 창출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진전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의 공동체 터전인 동네가 사라지고 있으며, 농어촌지역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어 생활의 기초단위인 마을조차 유지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배경이 되어 최근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 침체, 일자리 창출 부진, 공동체 해체 등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발로된 바가 크지만 보다 거시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경제의 재구조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발생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대두된 사회적 경제의 부상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분야는 과거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으나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의 분야를 공공과 민간이 영역을 공유하면서 혼합통치 현상이 발생하고 그 일환으로 주민의 직접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발전은 정부 주도의 물리적, 획일적, 외생적, 하향적 지역발전시스템의 폐해를 시정하는 새로운 대안적 접근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주체로서 지역공동체에 특별히 착안하는 이유는 지역내 다양한 민간주체의 역량 결집,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성적(軟性的) 개발, 개성과 창조를 살린 특화발전, 지역수요에 기초한 내생적 성장,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지속가능성 확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향적 추진체계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가치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체제의 관주도형 지역개발에서 지방자치체제의 주민주도형 지역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조직화된 주민집단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생태주의 확산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과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장소특화적(place-specific) 발전전략은 산업 중심의 발전양식과 대비되는 새로운 문화·생태 지향적 발전모델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II. 지역공동체활동의 추진실태

1. 지역공동체활동의 추진실태와 동향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생활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단위”를 일컫는데, 강조하는 바에 따라 개념이 다의적이지만 기본적 개념요소로서 지리적 영역(geographical 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통의 연대(common tie)의 세 차원을 함께하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가 활동하는 분야도 매우 다양한데 성격상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꼽을 수 있다. '70년대 이후 행안부와 농식품부 등이 중심이 되어 농산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소도읍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만들기사업 등이 사례이며, 작목반, 사업단, 영농(어)조합 등의 공동체조직이 주체가 되어 정부와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광특회계의 개편으로 포괄보조금제가 도입되면서 개별 사업은 폐지되었지만 농산어촌지역의 공동체가 주축이 된 지역개발사업은 여전히 또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표 1〉 지역공동체사업의 활동 유형

사업유형	성격	정부지원	사례	제도
재정사업형	·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 정부주도	사업비 예산충당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녹색체험마을사업	농어촌정비법 등 지역개발 관련법
풀뿌리운동형	· 자활, 환경, 복지, 주거, 지역만들기 · 자생적 시민단체 주도	일부보조	· 자활공동체사업 · 자활주거복지사업 · 마을만들기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기업형	· 사회적 경제활동 · 비즈니스방식 운영	일부보조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협동조합형	· 1,2,3차 산업 · 협동과 연대 방식	재정지원없음	· 생협, 의료생협 · 육아공동체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기본법 등

2. 지역공동체활동의 평가

지역공동체활동의 확산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이 동기로 작용하였지만 그 배경에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부족을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해 해소해 보려는 정책적 절박감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사업의 양적 증가의 이면에는 정부의 다소 무리한 정책 드라이브에 따른 추진과정상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이 명확히 확립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사업의 특징은 지역수요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밀착성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창출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지역공동체사업이 지역활성화 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정부지원을 당연시 여기고 그로 인해 자생력이 취약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형 지역공동체사업의 경우 중앙주도적으로 부처별 유사사업이 분산 추진됨으로써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부처별로 획일적 지침과 기준에 의한 공모제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적 지역공동체사업 육성 및 확산을 통제하고 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조정이 곤란하여 정책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부처간 정책협합은 필연적으로 지원대상을 무리하게 확대시키게 되며 그로 인해 철저한 실사와 검증이 미흡한 채,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할 경우 보조금 수혜를 악용하는 부실기업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시행착오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한시적 정부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사업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해져 지역공동체사업의 필수조건인 자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초기 설립을 위한 지원에 치중되어 있고 설립 후 운영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어서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다.

둘째 유형은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변화를 꾀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자생적으로 조직화된 마을공동체 또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빈곤층 자활, 주거복지, 환경개선, 테마형 마을만들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조(自助)와 공조(共助비)의 비영리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주체의 일부는 관련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의단체(사회단체)로서 근자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운동의 인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유형은 현 정부 들어서 본격화된 기업형 지역공동체사업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활동에 기초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등의 공동체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함께 인증제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년 현재 656개가 인증기업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으로 행안부가 추진하는 마을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일종으로서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하며 '12년 현재 501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다. 유사한 또 다른 사업으로는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들 수 있는데 '11년부터 54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기업형 지역공동체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직접지원, 간접지원, 제도정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일부 선도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유형으로는 협동조합형 지역공동체활동으로서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체 가치에 기초하여 공동 혹은 협동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이다. 전통적으로 '60년대 이후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자조합과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소비자를 위한 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운영되어 왔으며, 개별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공동체사업들을 모두 아우르는 제도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본다. 선도적 사례는 서울시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대표적 공약사업으로 표방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사업비 지원,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구상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은 일차적으로 기존의 뉴타운 개발사업의 출구전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행정과 자본이 아닌 거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새로운 삶터 가꾸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Ⅲ. 지역공동체사업의 활성화 방향

지역공동체는 지역발전과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은 제도와 정책의 도입 및 경험의 축적이 일천하여 개념 정립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공동체가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정책목표의 설정과 함께 지역공동체사업이 경영체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며 정부, 자치단체, 기업 등이 부족한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첫째, 지역공동체활동의 정책목표를 새롭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동체사업들이 시작단계에서는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지향함으로써 주민의 결집된 역량을 통한 내발적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사업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경우 당연히 인건비 보조에 치중하게 되고 결국 사업체의 부실과 함께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을 손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주체인 지역공동체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초기에는 활동적인(energetic) 사업가나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뜻을 같이하는 공동체의 집단적 선도(collective initiative)도 매우 중요하며 조직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급적 법인격의 취득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역공동체가 계약, 수익배분, 출자 유도, 조세감면 등 각종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개방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지역공동체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조금을 통한 직접지원방식에서 점차 운영에 대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초기단계에서는 직접 지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우 미구에 재정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활동의 지속이 곤란해 질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활동의 본질적 요소인 자주성과 자립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리더양성, 정보제공, 교육·컨설팅 지원, 자치단체 우선구매,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경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접지원을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을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사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배양해야 한다.

넷째, 지역공동체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는 자치단체가 주도하되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지원은 제도적 지원 및 간접지원을 지향하되, 중앙정부는 제도마련과 예산지원에 역할을 한정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 일임하여 행정업무 위탁, 우선구매,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기업과도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상보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담양군의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전, “으뜸마을 가꾸기”



최형식
담양군수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민선 5기 담양군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모든 정책을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지역경제를 위한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모범사례로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이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형은 무엇이며 사례로는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담양군을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건설하겠다고 군민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실천방안에 대해 공무원들과 군의회에 요구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공무원 및 군의회가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더불어 급변하는 세계와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공감하였기에 민선 5기 담양군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현화시키는데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담양군은 거창한 담론과 전문적 학술용어가 난무하는 행정이 아닌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친근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 그동안 담양군은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주도할 수 있게 공동체 및 마을단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흥미가 배제되는 사업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소멸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담양군은 지역민이 원하는 지역경제사업 그리고 가치 있는 지역자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및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기본 모델로 삼고 담양군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으뜸마을 가꾸기는 균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공원 꽃길 조성, 마을환경 정비 사업, 공동작업장 등을 추진으로 사업 현장 평가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추가지급하여 사후관리 및 마을가꾸기 추가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2012년에는 마을의 공모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28개 마을에 2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특색을 살린 소득창출 및 관광사업과 연계되는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주민자치행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주민자치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 나은 경제와 복지담양 문화관광 등 담양구현을 위해서 주민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국의 성공한 지역의 전략을 분석한 결과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곳이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던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해 확대·발전시킨 곳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의 읍면사무소의 민원담당을 폐지하고 ‘마을가꾸기담당’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담양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전 읍면을 대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을 소득을 창출할 경제분야는 물론 문화·관광분야, 마을가꾸기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추진의 효과와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담양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주민이 직접 마을의 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해 마을이 안고 있는 필수적 해결과제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핵심테마를 발굴·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읍면중장기 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교육과 전국의 마을 만들기 벤치마킹 등 선진마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여 마을만들기 추진에 접목하여 으뜸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담양군이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으로 각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유·무형의 소중한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특색있는 테마로 마을을 가꾸어 주민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담양군 내의 마을 및 지역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는 모형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님께서 지향하시는 담양의 지속가능한 마을 및 지역공동체 만들기의 모형은 무엇입니까?”

으뜸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천’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나 요즘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치 있고 생산성 있는 마을 만들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천’ 이 중요합니다. ‘실천’ 을 바탕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모형이 나오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담양군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마을 및 지역공동체 만들기 모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이 주도하고 관과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지원하는, 즉 거버넌스(협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은 빠지거나 제3자로 전락하고 관 혹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은 결국 실패를 하거나 지역에서 제대로 뿌리를 정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죽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 하며,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가꾸고 만들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해 내려는 의지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마을과 공동체에 생기가 납니다. 이를 통하여 마을경제, 지역경제, 담양경제, 전남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담양군 마을만들기 주민설명회

둘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은 그 지역 내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마을가꾸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을을 만들고 가꾸는데 있어 지역주민이 직접 자기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사업이 성공합니다.

셋째, 마을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농업의 소득창출 등 마을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며 마을가꾸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역리더 및 차세대 지역리더 양성이 중요합니다.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기업이나 공공조직에서 항상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마을가꾸기에서도 당연히 중요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마을가꾸기는 단기적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리더에 의존하게 되거나 다음 리더를 양성하지 못하면 마을과 지역공동체는 정체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부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군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민자치위원,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가꾸기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교육을 통하여 발전된 담양의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가꾸기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인식과 실천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실패한 사례를 보면 공무원의 인식과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시행정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타 지역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우리 담양군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공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민선 5기 목표가 매년 가시적 성과를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 법적 지식은 물론 폭넓은 시각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더불어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학습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담양군은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조직의 학습 및 연구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숨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발전 더 나아가 담양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담양의 연구모임이 특별한 이유는 정책연구 모임 결성에서부터 연구주제선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벤치마킹과 과제해결 과정 등 전 연구과정이 공무원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운영·추진하고 있어 참여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민원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정책연구모임 과제발표에서 마을기업 육성방안, 지역관광자원 활성화방안 등 다양하면서 실용적이고 경제성을 갖춘 정책(안)들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통해 창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담양지역발전 및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담양을 바꾸어 나가는 변화의 시작은 바로 ‘공부하는 공무원’ 이란 것을 우리 담양군의 600여 공직자는 잘 알고 있으며,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공부하는 ‘모태 공복’ 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담양군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 〉

- 조직의 학습·연구 분위기 조성으로 기획한 정책 연구 모임
- 팀별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과제수행을 위한 자료수집·연구·학습, 선진지역벤치마킹 등 전 과정이 팀원의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연구결과가 군정에 반영됨



2012년 담양군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 우수 정책연구모임 1~3등에게는 시상과 함께 팀원 전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연구팀 팀원 전체에는 상시학습 30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 2012년에는 접수를 통해 선정된 자치농정분야 2팀과 지역경제분야 3팀, 문화관광분야 2팀을 비롯해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일반행정, 교육분야에서 각각 1팀이 참여, 총11개팀 92명이 활동 중

“

담양군 소속 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연구모임을 만들어 일하는 모습을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여 공직수행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리더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담양군이 제공하는 지역리더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

담양군은 지역리더 및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켜 지역발전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마을리더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마을가꾸기를 위한 교육, 마을리더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양군 마을리더교육의 특징으로는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내용으로는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통한 농촌마을 관광사업 육성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지역문제를 자발적으로 탐색해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마을리더 양성과정입니다. 이같은 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집합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주민주도형 마을가꾸기 기법과 사례분석 등 정보기술획득 및 기획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담양군 마을리더교육은 “으뜸 마을가꾸기, 나의 리더십에 있다” 는 목표로 지역의 성장가능한 자원발굴과 우리농업이 생존할 수 있는 과제 등 참여형 토론을 통해 마을발전방안을 탐구하는 등 마을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중점 배양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대답·정리 : 전 대 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이 대 연(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맑은 대나무 숲이 살아 숨 쉬는 생태도시, 담양



초록빛 대나무의 싱그러운 향기가 가득한 곳_죽녹원



푸른 하늘 위로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며 짙 짙 뻗어 올라간 시원한 대나무 숲으로 한 발자국 들어서면 신비로운 녹색의 정원이 펼쳐진다. 그 곳의 풍경은 시원함과 청량함을 넘어 서서 그로테스크한 신비로움까지 뿜어낸다. 그 시원하게 펼쳐진 광경과 더불어 알싸하고 싱그러운 향기는 코끝을 자극한다. 그와 더불어 울창한 대나무 숲이 연주하는 신비스러운 교향악을 감상해 보길 바란다.

담양천변에 있는 죽녹원은 대나무의 천국이다. 2003년 5월에 조성하여 약 31만㎡의 울창한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죽립욕을 즐길 수 있는 총 4.2Km의 산책로는 운수대통길, 죽마고우길, 셋길, 추억의 셋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성인산 오름길, 철학자의 길, 선비의 길로 8가지 주제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죽녹원 입구에서 돌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밟고 오르면서 굳어 있던 몸을 풀고 나면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대바람이 일상에 지쳐있는 심신에 청량감을 불어 넣어 준다. 울창한 대숲 한가운데 서서 댓잎의 사각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맑게 정화된 심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푸른 댓잎을 통과해 쏟아지는 햇살의 기운을 온 몸으로 받아내는 기분 또한 신선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죽녹원 안에는 대나무 앞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죽로차(竹露茶)가 자생하고 있으며, 밤에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대나무와 문화예술의 만남_대나무 박물관

전국 유일의 죽 제품 주산지로서 보존, 전시, 시연, 판매 등 종합기능을 수행할 공간을 갖추어 죽세문화 전통 계승과 죽세공예 진흥의 계기를 마련하며, 도시근교의 이점을 살린 관광 자원을 조성해 가고 있는 곳이다. 담양에서는 이 같은 죽세공예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한국대나무박물관을 짓고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죽제품의 보존, 전시, 제작,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5월에는 담양군 주최로 이곳과 문화공원 일대에서 대나무축제가 열린다. 대나무 종합관광단지 부지 4만 5000㎡, 건물 약 3,300㎡ 규모로, 대나무박물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죽종장, 죽공예체험교실, 담양문화원, 판매점,

공원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대나무박물관에는 조선 말기에 궁중에서 사용했던 부채와 방건통 등 옛 죽제품과 중요무형문화재(낙죽장·죽렴장·채상장·참빗장)의 제품과 현대와 과거의 실생활에 주로 이용된 대나무 여름용품, 무기류, 장신구 등 총 2,555점이 전시되어 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는 죽세공예 기능을 보유한 무형문화재가 기능 전수를 하며, 죽종장에는 한국에 자생하는 대나무 64품종이 식재되어 있다.



대나무의 신비로운 체험의 장_대나무골 테마공원



울창한 대나무 숲에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 대나무골 청소년 야영장은 대규모 자연학습장으로, 야영시설 및 캠프파이어 시설이 있어 청소년의 정서함양활동, 자연체험활동, 가족단위 야영장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대나무 숲의 신비로움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 보자. 대나무골 테마공원은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산51-1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 99,173㎡, 건축면적 330㎡로 최대 150명 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주요 시설로는 야영시설, 집회시설, 샤워장이 있고, 편의 시설로는 운동장 및 체육 시설과 수련 시설이 있다.

향긋한 죽 향이 가득한 죽통밥과 심신이 건강해지는 죽순요리

여행에서 음식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커다란 즐거움이자 선물이다. 대나무의 멋진 매력을 오감을 통해 충분히 만끽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대나무를 이용한 요리를 실컷 즐길 차례이다. 싱그러운 대나무의 향이 가득한 죽통밥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 질 것만 같은 죽순 요리를 즐겨보길 바란다.

● 죽통밥

싱그러운 대나무 향이 가득한 죽통밥은 3년 이상 자란 왕대의 대통을 잘라 밥을 짓는다. 더 이상의 아름다운 그릇이 따로 필요치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대나무 속에 담겨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입에 넘기는 순간, 죽통밥의 모양과 맛에 금세 매료될 것이다.



● 죽순요리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대밭에 가보면 보이지 않던 순이 여기저기 솟아나 '우후죽순(雨後竹筍)' 이란 말이 생기기도 한 죽순은 맛이 담백하고 향이 좋아 예로부터 여러 요리에 이용되었다. 봄철부터 초여름까지 짧은 기간에만 향기 좋은 날 것의 죽순을 먹기 때문에 독특한 질감과 아린 맛이 느껴진다. 그 독특한 질감과 맛은 대나무에게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신선한 감성으로 다가올 것이다.

주요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1. 일본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례

지역공동체 사업 분야 및 유형

- 일본의 지역공동체는 활동단체에 의한 NPO법과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설립에 대한 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의하여 시민기업가형, 7인 유지형, 지역공동체형, 실업자형으로 구분됨
- 주요목적은 생활의 질 향상, 일하는 방식의 확립, 사회문제의 해결, 경제기반의 확립에 있음
- 일본의 지역공동체 유형은 생활지원(복지), 관광, 환경,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산업연계, 창업지원, 문화예술로 구성됨

〈일본 지역공동체 사업 분야〉

유형	사업명
생활지원·복지형	· 생활공동관 좋은 사이(くらし協同館なかよし) · 하야카와농원 농업생산법인(유)씨드컬처 · 시마즈꾸리넷(NPO法人しまづクリネット)
관광형	· 어업체험형 민박 후나야 여관 카기야(舟屋の宿 鍵屋) · 미나미알프스 필드 트립(S-Alps Farm Field Trip) · 슌란노사토(春蘭の里)
환경형	· 임대농원사업(주)마이팜(株)マイファーム · 가와사키 시민비누공장 · 북해도 그린펀드(北海道グリーンファンド) · 미나미하타 댐저수모임(南畑ダム貯水する会)
복지·보건·의료형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이키이키야사무시(生き粋あさむし) · 스페-스 하치노코(すぺーすはちのこ)
마을만들기형	· 철도 도시락(유)타카타상사(有)高田商事 · 주)하크레이주조(株)ハクレイ酒造 · 난탄시 농사조합법인 그린히요시(農事組合法人 グリーン日吉) · 교토 쌀문화 체험형 안테나숍(주)하찌다이메기헤이 · 노도학사(能登学舎)
산업자원연계형	· 교토산업21(京都産業21) · 히마와리테(ひまわり亭) · 스미다리버사이드네트(すみだりバーサイドネット)
창업·지원, 약자의 사회적 돌봄형	· 아스크넷(アスクネット) · 코코팜 와이너리(ココファーム・ワイナリー) · 모리소바야(森のそば屋)
문화·예술·스포츠형	· 오쇼야 우에노가(大庄屋 上野家) · 미야자키문화본포(宮崎文化本舗) · M 브릿지(Mブリッジ)

분야별 대표 지역공동체 사업내용 및 성과

- 일본의 지역공동체 사업은 주로 지역의 토산품과 생산물을 활용한 지역자원 활용형, 관광형이 활발히 운영중에 있으며, 이의 운영을 통해 소득 창출 및 일자리창출 효과를 파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체험교육 및 학습을 통한 간접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가치의 창출 및 일자리 제공
- 주변 지역자원과의 연계 도모 및 연관 서비스간의 연계성 증대
- 창출된 이윤 및 사업의 개발로 지역환원사업의 추진
- 도시락배달, 농산물 판매 등의 이윤 창출을 통한 취약계층의 고려로 삶의 질 증대
- 취업 희망자에 대한 기술전수 및 고용 기회 제공
- 마을공동체 사업의 개발을 통한 자립성 증대
-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 스타일의 제공
- 빈공간을 활용한 마을카페 및 유기농상점의 운영으로 주민간 네트워킹 증대
-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대비 실시

〈일본 지역공동체 사업 내용 및 성과〉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성과
생활지원·복지형	시니어마을, 이바라키현(茨城県)	· 고령자 대상 Cooperative House 건설 · 건축, 복지, 식사서비스, 교류장소 제공	·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 서비스가 연계성 증대
지역자원 활용형	산북마을 생업 기업, 니가타현(新潟県)	·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 발굴·제조·판매 · 전통작물 시나후(しな布) 제조 · 숲을 활용한 먹거리체험과 지역자원 체험활동	· 전통상품 판매를 통한 이윤창출 · 마을공동체 사업의 개발 · 지역 자립성 증대 · 100만엔/5가구 출자와 상공회의 지원으로 조합 설립
관광형/도시활동형/준시장형/내방자소비형	타테야마 해변 감정단(たてやま・海辺の鑑定団), 치바현(千葉県)	· 자연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 기획 및 프로그램의 실시, 관광처의 수탁 사업, 인재육성사업, 자연체험 가이드사업 · 앞바다의 '의도 에코투어' 비치코우밍(beach combing) 체험, '슈노케린구'에서의 산호관찰, 의도의 무인도탐험	· 2008년 '노' 섬의 에코투어 프로그램의 참가자 2,000명 ·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 향상 및 지역 매력, 브랜드향상 · 타테야마(館山)의 이용자 증가로 해수욕장의 활성화 · 지역간 연계 강화로 정보 제공 및 친목 향상
지역만들기형/도시활동형/시장형/커뮤니티완결형	(주)아모르도와(アモルトワ)	· 레스토랑사업(도쿄 병원 내 매점 및 레스토랑 운영, 삼정재료 납품) · 학교급식사업(초·중학교, 보육원, 복지 시설에 식재료 납품 및 급식) · 청소사업 · 빈점포 활용 지역환원사업 · 재래시장 전용 쿠폰카드(포인트적립 및 할인 적용)	· 210명의 지역고용 발생 · 다양한 지역환원사업의 구상 및 추진 · 인근 지역주민, 재래시장 상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성과
환경형/네트워크형/준시장형	임대농원사업 (주)마이팜(株) 마이팜	· 임대농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휴경지를 재생 · 농업전문학교사업 운영을 통해 전문 농업인 양성	· 후쿠이 지역의 경작포기지 문제를 해결 · 농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체험활동 제공
복지·보건·의료형/시장형/크로스오버형	특정비영리활동 법인 이키이키아 사무사(活き粋あさむし)	· 커뮤니티카페 活き粋あさむし 운영 · 지역농업(농장운영) · 체험프로그램 · 헬스 투어리즘(Health Tourism)	· 자연과 공생 생활을 추진하는 음식과 농업 연계성 강조
생활지원사업형/시장형/커뮤니티완결형	카페 코코타노 (cafeここの)	· 빈 점포를 이용한 커뮤니티 카페 운영 · 커뮤니티활성화 위한 야간 마을 교실, 이벤트 개최 · 현지 야채와 특산물 판매 가게 '토레타노' 운영 · 지역민 스스로 콘서트를 개최 및 작품 전시 Hall 운영 · 마을 교실, 상가 제휴사업 실시	· 마을카페와 유기농가게의 사업의 성공적 운영 · 빈 점포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주민간 네트워킹 증대
마을만들기형/시장형/커뮤니티완결형	츠치노에끼 이마조 (土の駅今庄)	· 후쿠이현 농산물직매소의 운영 · 이마조지구 생산 재료 활용 향토레스토랑의 운영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한 요리와 도시락 판매점포 운영 · 과자공방 운영	· 독거노인 및 주민대상 도시락 배달 및 농산물, 식료품 판매 · 주부그룹의 활동으로 농가와 협력관계 구축 · 지역자원 활용으로 고령화문제 대응 · 매월 향토요리교실(30명 정원)을 운영으로 지역 전통요리 계승
산업자원연계형/시장형/크로스오버형	히마와리테 (ひまわり亭)	· 60세이상 여성 고용 농가레스토랑 운영 · 유치원 급식 · 사회취약계층 및 일반인 대상 도시락 반찬사업	· 연간 6~7천만엔 창출 · 5만명 이상 고객 방문 · 자산지소로 지역농가 판로 확보 · 그린투어리즘(히마와리테 농가레스토랑 방문 고객에게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지역환원사업으로 레시피북 판매·보급
창업·지원·약자의 사회적 돌봄형/시장형/지역의 소비형	코코팜 와이너리 (ココファーム・ワイナリー)	· 정신지체인 추축의 포도생산, 양조, 출하 · 매년 11월경 수확제 개최	· 사노시에 2ha 포도밭 개간 건인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소노마에 5ha의 포도밭 소유 · 공적 보조금 없이 장애인 고용 확보 및 자립 독려 · 장애인의 삶의 보람 만들기 · 사회참여와 고용의 기회 제공
문화·예술·스포츠형/시장형/커뮤니티완결형	미야자키문화 본포 (宮崎文化本舗)	· 미야자키영화제진행 · 미야자키영화관운영(영화촬영장소로서 지역 연계 등을 추진) · 지역행사의 기획 및 운영 지원 · NPO 하우스 운영 · 적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 새로운 고용과 소득창출 ·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영화에 대한 지역민의 수준 향상 · 지역민이 직접 만드는 문화행사의 체계성 향상 · 시민과 지역에 다양한 문화행사 공급

2. 주요국의 지역공동체 사업 분야 및 내용

- 주요국의 지역공동체 사업은 환경형과 마을만들기형이 주도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환경형은 자동차 렌트, 자전거 재활용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연계시스템의 강화로 환경오염 절감, 사회적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순효과가 파생됨
 - 마을만들기형은 지역 식품의 유통망 확보를 통한 판매량 증가로 지역 식품 산업의 발전과 신선한 식품의 제공 결과를 견인하였음

〈주요국 지역공동체 사업 분야〉

국가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효과
이탈리아	환경형/시장형/커뮤니티완결형	카셰어링 (Car Sharing) Lefambiente	· 자동차 렌트	· 비용절감 및 스트레스 절약 · 대중교통 연계 활성화 · 환경오염 저감 · 사회적비용 절감(1인당 4,000유로 절감)
	환경형/중간지원형/커뮤니티완결형	+BC자전거연합 (+BC Cycling Association)	· 자전거 재활용 · 기술 교육, 유지관리, 워크숍, 주차 시설, 자전거 보관 등 서비스지원 · 문화 활동 조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 수단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환경친화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제공 · 자전거와 지하철도를 통합하는 교통수단 제공 · 교통문제와 오염문제 해소 · 오래된 자전거를 수리로 재판매 문화 활성화
영국	마을만들기형/시장형/크로스오버형	지역식품연결망 밴(VAN)	· 농산물유통 · 지역내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	· 지역 식품 생산량 증가 · 지역 식품 생산업 운영으로 지역경제 및 지역 환경 선순환 · 신선한 토산품 이용 · 40명의 농부별 그룹이 밴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혼잡과 오염을 최소화
	관광교류형/준시장형/내방자소비형	뉴 레너크 트러스트 (New Lanark Trust)	· 산업혁명 당시의 가게 재현한 마을 상점 운영 · 호텔과 유스호스텔로 관광객 숙박 및 직업경험장 활용 · 교육·직업훈련 · 수공예, 가구점, 기념품점, 레스토랑 운영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 매년 40만 명의 관광객 방문 · 약 200여 명 주민고용 창출 · Green Tourism Business Scheme Award 수상
	환경형/비시장형/커뮤니티완결형	프러퍼잡 (Proper Job)	· 비료만들기 · 교육 · 레스토랑 · 생산된 채소 메뉴 개발 및 판매	· 고용창출 · 지역화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타 지역으로 재활용 활동 확산

국가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효과
영국	환경형/ 비시장형/ 커뮤니티완결형	윈드밀 힐 도시농장 (Windmill Hill City Farm)	· 도시농장 운영으로 다양한 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 · 직업훈련 · 시니어클럽 운영 · 상점 · 카페(유기농채소, 유제품 등 판매 및 활용)	· 고용창출 · 지역화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타 지역으로 재활용 활동 확산
핀란드	환경형/ 중간지원형/ 커뮤니티완결형	Bicycle Flea Market	· 자전거 수리 판매	· 자전거 재활용 확산 · 아파트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의 활용 증대 · 실직자들에게 기술 제공 및 재취업 기회 확대
에스토니아 연합	산업자원연계형/ 시장형/ 크로스오버형	유기농 농장 오코세이버 (Öko Sahver)	· 유기농산물 유통 · 전화나 온라인 주문을 통한 배달	· 소규모 농장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 일자리를 창출 · 생태적 음식과 라이프스타일 홍보 · 유기농법과 계절적 경작법으로 오염 감소

마을공동체 관련 지역일자리사업 현황

- 경제위기로 발생한 빈곤 해소 및 실업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관련 지역일자리 사업은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을 들 수 있음
 -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시작되어 2011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으로 전환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일자리 사업은 안정적 · 시장형 일자리사업과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구분
 - 2010년부터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으로 시작된 ‘마을기업 육성사업’ 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 · 문화 ·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혹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총칭 (행정안전부, 2011)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

- 2011년을 기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선발인원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총 50,038명으로 전체 신청인원의 약 24.6% 수준
 - 신청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가 3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남(30.4%), 전남(29.9%), 경북(29.3%), 경기(29.0%) 순
- 선발된 인원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8,997명(18.0%)이 선발되어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북도 8,068명(16.1%)과 5,000명(10.0%)으로 많은 편
 - 반면 제주도는 407명이 선발되어 전체 선발인원의 0.8% 수준에 그쳤고, 울산 (644명)과 광주(1,321명) 및 대전(1,336명)도 적은 편에 속함
-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59.7%로 남성보다 더 많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발된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남성(32.9%)에 비해 34.1%가 많은 67.1%가 여성으로 선발됨
 - 부산의 경우에는 남성(49.0%)과 여성(51.0%)의 선발 비율이 가장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신청인원 (명)	선발인원 (명)					
		소 계		남		여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합계	203,348	50,038	100.0%	20,149	40.3%	29,889	59.7%
서울	32,069	8,068	16.1%	3,438	42.6%	4,630	57.4%
부산	16,938	3,137	6.3%	1,537	49.0%	1,600	51.0%
대구	10,047	2,289	4.6%	977	42.7%	1,312	57.3%
인천	13,122	2,392	4.8%	908	38.0%	1,484	62.0%
광주	9,527	1,321	2.6%	559	42.3%	762	57.7%
대전	9,593	1,336	2.7%	602	45.1%	734	54.9%
울산	3,324	644	1.3%	245	38.0%	399	62.0%
경기	31,056	8,997	18.0%	3,631	40.4%	5,366	59.6%
강원	9,346	3,387	6.8%	1,325	39.1%	2,062	60.9%
충북	8,459	2,328	4.7%	934	40.1%	1,394	59.9%
충남	8,422	1,908	3.8%	764	40.0%	1,144	60.0%
전북	12,974	2,890	5.8%	1,262	43.7%	1,628	56.3%
전남	9,510	2,841	5.7%	936	32.9%	1,905	67.1%
경북	17,047	5,000	10.0%	1,725	34.5%	3,275	65.5%
경남	10,172	3,093	6.2%	1,164	37.6%	1,929	62.4%
제주	1,752	407	0.8%	142	34.9%	265	65.1%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제작성

- 사업유형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먼저 안정적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2011년에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사업(18.9%)보다 폐자원 재활용사업(81.1%)에서 훨씬 많은 일자리를 지원하였음
 - 제주도와 충북의 경우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사업은 약 2% 미만으로 대부분 폐자원 재활용 사업에 해당
-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대부분 주민숙원사업(67.4%)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도 20.2%를 차지
 - 취약계층 집수리사업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전체 지역주도형 일자리 중에서 각각 6.7%와 5.7%에 불과함

구 분	안정적 시장형 일자리사업(명)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명)			
	중소기업 등 취업지원	폐자원 재활용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주민 숙원사업
합계	904	3,867	3,034	9,144	2,589	30,500
서울	109	1,199	212	754	470	5,324
부산	216	111	219	725	181	1,685
대구	76	131	83	456	104	1,439
인천	25	68	203	219	40	1,837
광주	46	314	76	304	101	480
대전	13	73	99	268	87	796
울산	11	46	13	189	44	341
경기	50	657	350	1,788	659	5,493
강원	59	258	262	628	169	2,011
충북	3	151	135	691	68	1,280
충남	60	172	109	420	27	1,120
전북	47	211	82	460	241	1,849
전남	15	187	226	767	87	1,559
경북	50	135	805	862	120	3,028
경남	124	146	160	571	173	1,919
제주	-	8	-	42	18	339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제작성

2. 마을기업 육성사업 현황

- 마을기업은 2010년까지는 총 184개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2011년부터는 사업명을 변경하고, 육성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6월말을 기준으로 539개가 선정됨
 - 행정안전부는 1시군구 1개 사업을 목표로 2013년까지 총 1,000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2011년 6월말을 기준으로 육성된 539개 마을기업으로 창출된 일자리 수는 2,975개이고 매출액은 약 73억원이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과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및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으로 구성

구 분	2010년				2011년 (6월말기준)			
	마을기업 (개소)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개소)	인증사회적기업		
		개소수 (개소)	창출된 일자리수 (개)	매출액 (백만원)		개소수 (개소)	창출된 일자리수 (개)	매출액 (백만원)
전국	184	490	13,436	367,352	539	532	2,975	7,322
서울	9	107	3,230	102,896	66	118	320	267
부산	15	25	881	13,456	29	28	171	211
대구	6	23	414	6,640	32	28	129	211
인천	8	34	913	21,621	27	34	78	97
광주	5	15	491	7,408	20	20	75	411
대전	6	11	406	6,830	17	11	96	681
울산	5	16	340	8,346	10	18	29	90
경기	25	84	2,330	111,725	96	94	955	627
강원	13	32	710	26,344	44	33	155	589
충북	7	24	606	10,307	13	24	80	463
충남	11	16	296	4,955	32	17	145	627
경북	14	23	881	15,376	33	24	184	269
경남	19	26	637	11,397	37	27	205	726
전북	17	23	516	13,723	34	25	128	1,598
전남	20	20	557	12,132	39	20	217	410
제주	4	11	228	3,195	10	11	8	45

*자료: 행정안전부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2012년 2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공동연구회 개최

주 제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관리
 일 시 / 2012. 7. 26(목) 14:30 ~ 17:3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정기간행물 발간

- KRILA FOCUS (7월호)
 -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 방안
- 지방행정연구지
 - 통권89호(2012년 6월호)



KRILA 교육연수

02 · 3488 · 7353

- 제3기 기후변화와 녹색공동체 교육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2. 8. 22 ~ 24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